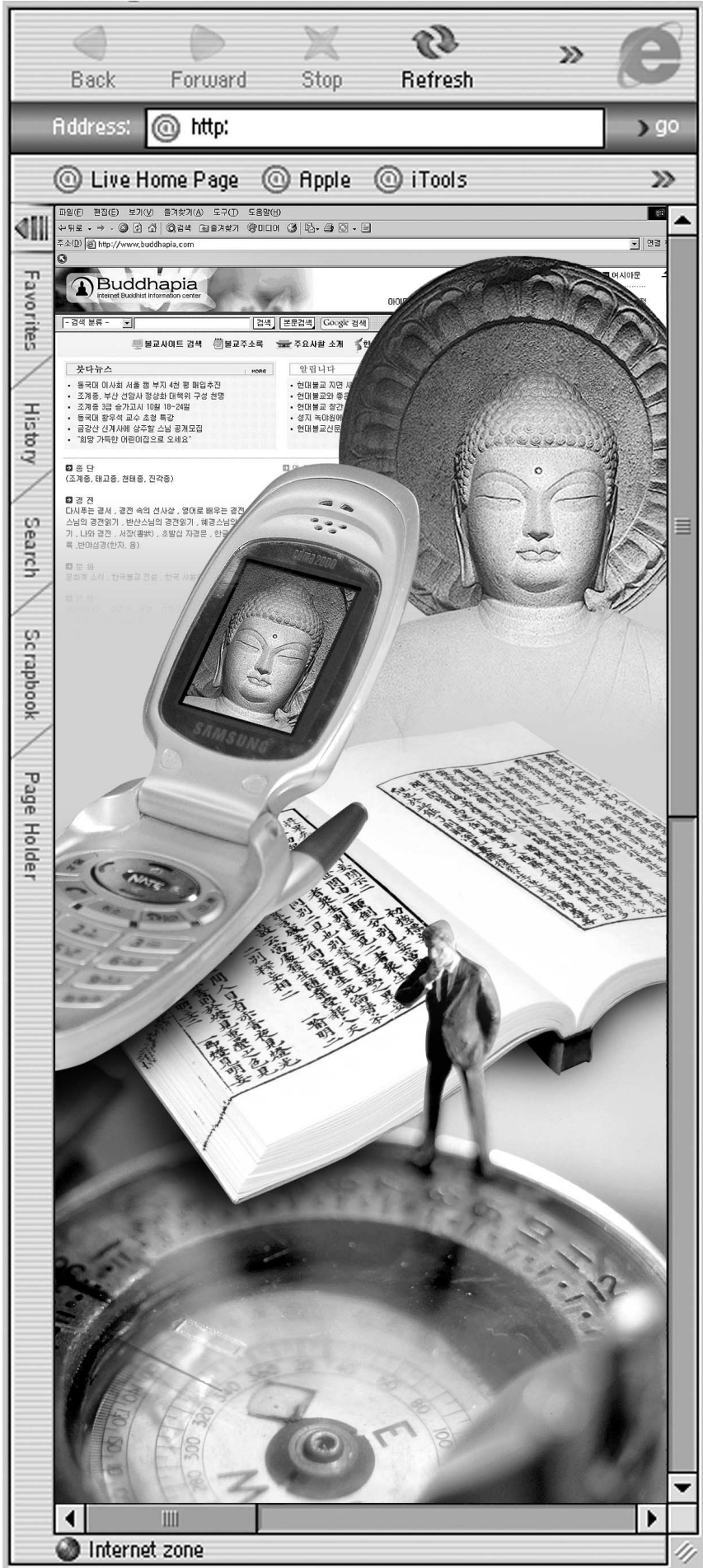




###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 환경변화 따라잡을 새틀짜기 시급



컴퓨터 그래픽=최정근

####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

급속도로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매체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그 거리를 가능하여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불교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 전문 공중과 방송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 텔레비전과 각종 신문들을 토대로 매체포교의 대가를 유지해 왔다. 다양한 미디어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매체를 활용한 포교 저변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오늘날의 불교 언론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통신환경을 따라잡는데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간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 온 불교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매체포교의 새로운 틀을 요구 받고 있다.

#### ●인터넷 세상에 포교당을

매체 포교의 토대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따라잡는데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생활화가 정착됐다. 언론환경의 변화 역시 인터넷의 영역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며 정보 취득 수단을 다양화 시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구현하며 △매체간의 융합과 영역파괴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의 위력은 신문과 방송에 의지해 온 포교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의 '위협'은 불교계 언론이 안고 있는 내부적 한계를 반성하고 극복해 나갈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불교계 언론은 매체 포교의 가장 일선에 서 있으면서도 경영의 한계와 보도의 한계를 가져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교계 신문이 안고 있는 경영의 한계는 '현상유지'조차 힘든 정도. 신문을 통한 포교 의지에 비해 과감한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신문의 비판 기능을 충분히 살려 교단의 건강한 '눈'이 되어야 할 매체가 승가의 권위와 영입적 타산 등을 이유로 필봉을 무디게 방치해 온 것도 반성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불교계 언론이 가진 이 같은 고민은 이제 새로운 언론 환경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상당한 희망의 담보한다.

인터넷 인구 3천만 시대, 인터넷은 포교

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인구가 신문과 방송에 비해 앞서고 있고 직장인의 인터넷 이용 시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2년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터넷은 라디오나 TV를 제치고 제1의 매체로 부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 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카페가 1천개를 넘고 있으며 불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합치면 인터넷 공간에서 불교를 주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인터넷 인구를 불러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 인터넷 인구 3천만 시대

#### 글로벌 포탈·양질의 콘텐츠가 승부처

#### 디지털 미디어의 신화

#### 유비쿼터스 '남의일'로 여기면 낭패

#### "포괄적인 포교 전략 수립하자"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계는 세계적인 주목할 포털 사이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이 인터넷 포교의 가장 취약지대라고 말한다. 불교와 관련된 자료가 망라되어 쉽고 빠른 검색 서비스가 가능하고 카페나 블로그 이메일 등의 활동 공간이 넉넉한 포털 사이트가 없다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포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양질의 포털을 갖지 않을 경우, 사 이버 상에 떠도는 불교정보를 검증할 신뢰성 있는 기구도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잘못된 왜곡된 불교정보와 의도적으로 왜곡된 불교 정보로 인한 네티즌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터넷 상의 불교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불안정한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도 발등의 불로

지적된다. 불교계는 긴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풍부하게 개발되지 않으면 불교의 역사성과 문화를 인터넷 세상에 심을 방법이 없다. 불교 교리와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포교자료의 구축은 물론 영상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네티즌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의 풍부한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취합 분류하고 디지털 화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불교계가 그간 언론매체의 투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콘텐츠 확보에도 투자를 하

#### 인터넷 인구 3천만 시대

#### 글로벌 포탈·양질의 콘텐츠가 승부처

#### 디지털 미디어의 신화

#### 유비쿼터스 '남의일'로 여기면 낭패

#### "포괄적인 포교 전략 수립하자"

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포교 역시 '주변 맴돌기'를 벗어날 수 없다.

#### ●디지털 방송 따라잡기도 급한 과제

인터넷에 못지않게 불교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따라 잡는 일이다. 휴대전화나 PDA 폰을 활용하는 DMB 방송 시대의 개막은 이미 예고된 것. 올 연말 이전에 휴대 전화를 이용한 DMB 방송(이동하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이, 내년부터는

차량에서 수신 가능한 DMB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하층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와이브로' 사업이 시작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통신과 방송을 융합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TV, 데이터 전송의 쌍방향 유통 등이 실현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도 이미 추진 단계를 벗어나 현실화 과정에 진입해 있다.

새로운 디지털 통신의 변화에 이미 기독교계는 발을 들여 놓은 상태다. 기독교 방송이 지상파 DMB 방송에 뉴스 공급을 할 계획이며 은누리 교회 역시 선교영상을 위성방송으로 세계에 서비스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관련 협약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 같은 변화에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교방송과 불교TV의 경우 아직 뚜렷한 디지털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종단이 미디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윤곽이 선명하지 않다.

정부는 현재의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100% 전환하는 시점을 2010년으로 잡고 있다. 불교계의 기존 매체들도 이와 궤를 같이 해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의 전개역시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 ●매체 포교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을 들로 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는 매체 포교의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이 화두를 풀기위해서는 매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단과 불교계 언론, IT 사업자 등이 함께 모여 포괄적인 미디어 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러한 전환점을 불교계 스스로 도출해내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빨리 정립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미디어포교는 보다 혁신적인 마인드와 투자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매체 포교란?** 매체를 이용해 포교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를 매체 포교라 할 수 있다. 서적, 잡지, 신문, 방송 등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역이 확산되면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위성 방송 등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매체 포교의 다양성과 쌍방향성 등을 가능케 함으로 가장 중요한 포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 회 장 김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 부 회 장

이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최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방지하 조계종 종회의장

#### 사무총장 이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 상임이사

전남정 총화종 총무원장    조법종 보문종 총무원장  
최법륜 원용종 총무원장    황우승 총지종 통리원장  
송무진 원효종 총무원장    신무관 조계종 총무부장  
김월해 태고종 총무부장    박덕수 천태종 총무부장  
손혜인 진각종 총무부장    최지원 조계종 사회부장

#### 이 사

김혜륜 법화종 총무원장    박심월 조동종 총무원장    이청봉 염불종 총무원장  
오해월 법상종 총무원장    이우삼 진언종 통리원장    진법달 용화종 총무원장  
이덕산 법륜종 총무원장    이대화 본원종 총무원장    정동봉 (재)일부선교총무원장  
정혜심 대승종 총무원장    사해광 삼론종 총무원장    김해곡 열반종 총무원장  
이월정 미타종 총무원장    김법우 여래종 총무원장    이만형 대각종 총무원장

#### 감 사

남암현 법화종 사회부장  
양법륜 염불종 사회부장  
송덕성 조동종 감찰원장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교육관 3층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